

恭齋 尹斗緒의 중국출판물의 수용

차미애*

| |
|---------------------------|
| I. 머리말 |
| II. 尹斗緒家の 회화 관련 중국출판물의 장서 |
| III. 명·청대 화보의 수용 |
| IV. 백과전서·목보·소설삼화·서양화법의 수용 |
| V. 맺음말 |

I. 머리말

恭齋 尹斗緒(1668-1715)는 18세기 초에 활약했던 近畿南人系 문인서화가이다. 그는 조선 중기 회화를 계승하면서 풍속화와 서양화법을 선구적으로 시도하고 남종화법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독자적인 회화이론을 펼친 화론가이자 서화비평가였다. 그뿐 아니라 경학, 제자백가, 예학, 음악, 패관소설을 비롯하여, 병법, 농사, 지리, 수학, 의학, 금석학, 천문 등 실용적인 학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다.¹

* 문화재청 무안국제공항 문화재감정위원

¹ 윤두서의 학문 범위는 尹德熙, 「恭齋公行狀」, 崔翊漢·李師亮, 「祭文」, 『棠岳文獻』 第6冊 海南尹氏文獻 卷16 恭齋公條 참조.

조선 후기 화단에서 차지하는 윤두서의 선구적인 면모는 현재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었으나 중국출판물의 수용양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파악된 윤두서의 회화에 미친 중국출판물은 『顧氏畫譜』, 『唐詩畫譜』, 『唐解元做古今畫譜』, 『張白雲選名公扇譜』, 『梅蘭菊竹譜』, 『三才圖會』 등 총 6책이었다.²

최근에는 중국출판물을 필사한 사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윤두서의 학문과 예술을 한층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송대 수학서인 『揚輝算法』(녹우당 소장)을 필사한 사례, 『恭齋先生墨蹟』(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운데 田汝成的 『西湖遊覽志餘』와 高濂의 『遵生八牋』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필사한 사례, 청대 黃鼎이 편찬한 천문서인 『管窺輯要』(녹우당 소장)를 윤두서가 주축이 되어 필사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³ 그밖에 윤두서는 지도에도 관심이 많아 1686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최신판 일본지도를 모사한 사례도 있다.⁴ 이와 같은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그가 중국과 일본의 출판물들을 시차 없이 수용하고 있는 개방적인 학문태도를 지닌 국제적인 지식인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두서가 조선 후기 새로운 회화경향을 선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중국의 회화 관련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고 파악하여, 윤두서가의 회화 관련 중국출판물의 장서 실태와 윤두서의 명·청대 화보, 백과전서, 묵보, 소설 및 희곡삽화, 서양화법의 수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한다.

² 윤두서의 회화 연구 및 그의 회화에 미친 중국출판물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李東洲·崔淳雨·安輝濬, 「좌담 恭齋 尹斗緒의 繪畫」, 『韓國學報』 第17輯(一志社, 1979, 겨울), pp. 162-181; 李泰浩, 「恭齋 尹斗緒一의 繪畫論에 대한 研究」, 『全南地方의 人物史 研究』(全南地方開發協議會研究諮問委員會, 1983), pp. 71-122; 李英淑, 「恭齋 尹斗緒의 繪畫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朴銀順, 「恭齋 尹斗緒의 繪畫: 尙古와 革新—海南尹氏 家傳古畫帖을 중심으로—」, 『海南尹氏家傳古畫帖』(文化體育部 文化財管理局, 1995); 李乃沃, 『공재 윤두서』(시공사, 2003). 李乃沃, 같은 책, pp. 260-263에서 윤두서의 전칭적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陳搏墮驢圖〉가 『有像列仙全傳』(1600년)에 실린 〈陳搏〉의 삽도를 참고한 작품으로 소개하였으나, 필자는 이 작품이 윤두서의 진작으로 확인할 수 없어 영향 관계에서 제외시켰다.

³ 차중천, 「녹우당 소장 『揚輝算法』의 位相」,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1冊(태학사, 2003), pp. 137-156; 朴銀順, 「恭齋 尹斗緒의 畫論: 『恭齋先生墨蹟』」, 『美術資料』 第67號(국립중앙박물관, 2001), pp. 89-117; 차미애, 「海南 綠雨堂 소장 筆寫本 『管窺輯要』의 考察」, 『역사학연구』 제31집(호남사학회, 2007), pp. 31-70.

⁴ 필자는 윤두서가 모사한 〈日本輿圖〉(녹우당 소장)의 원본이 1686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최신판 일본지도인 〈新版 日本圖大繪圖〉(木版手彩, 69.0×160.0cm, 大英圖書館 소장)임을 문화재청 문화재칼럼 2009년 3월 23일자에 소개한 바 있다.

II. 尹斗緒家の 회화 관련 중국출판물의 장서

尹斗緒家の 회화 관련 중국출판물의 장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海南尹氏群書目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⁵ 이 책은 昭和 2년(1927) 11월에 朝鮮史編修會 담당 修史官이었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해남윤씨 28대 종손인 尹定鉉(1882-1950)의 집에 소장된 중국서적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듬해인 1928년에 謄寫를 마치고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의 최종 검열을 거쳐 완성되었다.

『해남윤씨군서목록』에 실린 책들은 아쉽게도 조사 이후에 몇 책만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지만 1927년까지 보존된 윤두서가의 중국출판물의 수장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이하 『해남윤씨군서목록』은 『군서목록』으로 약칭함).⁶ 조선사편수회가 국내에 산재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전적을 선별하여 조사·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남윤씨 문중에 소장된 중국서적들만 유일하게 선택하여 중국 전문가인 이나바 이와키치에 의해서 목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이 서적들이 귀중본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⁷ 273면에 걸쳐 실려 있는 2,738종의 서목들은 대부분 청대 康熙年間(1662-1722) 이전에 출간된 희귀본들로 채워져 있어 수장 시기의 하한을 1722년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⁸ 특히 이 목록에는 명황실의 장서목록인 『文淵閣書目』과 명대 개인장서 목록인 高儒의 『百川書目』(원제목: 百川書志)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남윤씨 가문이 넉넉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중국서적들을 수

5 『海南尹氏群書目錄』은 1927년 朝鮮史編修會에서 작성한 원본을 昭和 16년(1941) 7월에 다시 謄寫한 책이다. 이 책의 존재는 2002년 송일기 교수를 통해서 알게 되어 차미애, 『線雨堂主 尹德熙의 文集 및 畫帖』, 『海南 線雨堂의 古文獻』 제1책(大學社, 2003): 同著,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美術史學研究』 240호(韓國美術史學會, 2003): 同著, 앞의 논문(2007)에서 이 목록에 실린 화보류와 소설류의 서목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내옥, 앞의 책, 부록 5에는 서목 전체가 실려 있을 뿐 이 서목들과 윤두서의 회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6 현재 해남 종가에 전하는 총 1,512책은 해남윤씨 가문의 선조들이 남긴 전적과 국내에 간행된 출판물, 그리고 일부 중국서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녹우당에 현존한 책 가운데 『군서목록』에 실린 서목과 일치한 책은 총 9종으로 『大學衍義』, 『大學衍義補』, 『書經集註』, 『禮記集註』, 『宣和畫譜』, 『字彙』, 『琴譜大全』, 『觀象玩占』 등이다. 『자취』(14책)는 “孝彥之記”라는 장서인이 적혀 있어 윤두서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명대 梅膺祚가 音譯하고 劉永愁가 重訂한 字典으로, 萬曆乙卯(1615)에 쓴 매옹조의 서문과 33,179자가 수록되어 있다.

7 이나바 이와키치는 외국어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였고, 1909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조사부에서 활동하면서 1915년까지 『만주역사지리』의 편찬에 참가하였다. 相賀徹夫 編, 『大日本百科事典』 卷2(東京: 小學館, 1972).

8 『군서목록』 가운데 康熙年間 이후에 출간된 서목으로는 文廷式(1856-1904), 『元女兵法』, 吳大澂(1835-1902), 『古玉圖考』(1889) 등이 있고, 국내 출간 서목으로는 『東國史略』과 鄭麟趾의 『高麗史』 등이 있다.

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남윤씨가의 중국서적들은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두서의 6대조 尹衢(1495-1549, 1518년 書狀官), 윤구의 차남 尹毅中(1524-1590, 1559년 冬至使), 고조 尹唯幾(1554-1619, 1595년 世子奏請書狀官) 등 명나라에 다녀온 선조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⁹ 2차적으로 증조부인 尹善道(1587-1671)에 의해서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윤두서가 살았던 시기에 중국서적의 수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독서열풍과 맞물려 장서가가 출현했던 추세를 감안해 보면, 윤두서대에 장서수집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¹ 특히 회화 관련 서목들은 이 가문이 배출한 서화가이자 회화이론가였던 윤두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군서목록』에 수록된 회화 관련 출판물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회보 · 백과전서 · 목보 |
|--|
| 李公麟의 古器圖, 王黼 등이 편찬한 博古圖(원제목: 宣和博古圖), 方于魯의 方氏墨譜(1588년), 洪應明的 仙佛奇蹤(1602년), 墨苑(원제목: 程大約의 程氏墨苑, 1606년), 三才圖會(王圻 · 王思義 1607년 초간), 楊爾曾의 圖會宗彝(圖繪宗彝의 誤記, 1607년), 黃鳳池의 唐詩畫譜(萬曆年間), 林有麟의 素園石譜(1613년), 章潢의 圖書編(1613년), 李笠翁畫譜(芥子園畫傳의 별칭) ¹² |
| 화가들의 문집 · 화론서 · 회화 관련 서적 |
| <p>당 · 송 · 원: 歐陽詢의 藝文類聚, 張舜民의 畫墁錄, 蘇軾의 東坡居士集, 宣和畫譜(1120년, 명 鍾人傑 輯, 녹우당에 현전), 何遠의 春渚紀聞, 鄧椿의 畫經(畫繼의 誤記), 龔開의 文信公集(宋 文天祥의 文信公集의 誤記로 추정), 周密의 雲煙過眼錄 · 齊東野語, 趙孟頫의 松雪齋集, 夏文彥의 圖繪寶鑑(1365년), 倪瓚의 清閨閣集</p> <p>명: 韓昉의 續圖繪寶鑑(원제목: 圖繪寶鑑續編), 陶宗儀의 輟耕集(원제목: 輟耕錄), 蕭詢의 故宮圖錄(원제목: 故宮遺錄), 王紱의 玉舍人集, 朱存理의 鐵網珊瑚, 李東陽의 懷麓堂集, 顧清의 東江集, 文徵明의 甫田集(‘文徵明集’이라는 서목이 더 확인됨), 楊慎의 丹鉛錄 · 升庵集(1608년), 李開先의 中麓畫品(1545년), 文彭의 文博士集, 何良俊의 四友齋叢說(1569년), 徐渭¹³의 徐文長集, 王世貞의 王氏畫苑 · 藝苑卮言(1565년) · 弇州山人集 · 王弇州正續四部稿, 朱之蕃의 艾齋集, 董其昌의 容臺集(1630년), 何喬遠의 名山藏, 陳繼儒의 書畫史, 金賁의 畫史會要(朱謨堽의 畫史會要的 誤記인지 불명확함), 李日華의 紫桃軒雜綴 · 六研齋筆記(1626년 劉日曦序), 顧起元的 客座贅語(1628년), 袁宏道の 袁中郎集(萬曆年間), 黃道周의 博物典彙, 程嘉遂의 松圓浪陶集, 鍾惺의 隱秀軒集, 謝肇淛의 五雜俎, 高濂의 遵生八牋, 屠隆의 考槃餘事</p> <p>청 초: 周亮工의 因樹屋書影, 顧炎武의 日知錄, 沈自南의 藝林彙考, 李國宋의 羸隱集, 方以智의 浮山集</p> |

⁹ 尹斗鉉 編, 朴浩培 · 尹在振 옮김, 『橋亭先生遺稿』(精微文化社, 2005), pp. 7-22; 『棠岳文獻』 第1冊, 橋亭公(衢), 駱川公(毅中), 滄洲公(唯幾)條 참조.

¹⁰ 윤선도는 51세에 지은 「낙서재」와 「석실」이라는 시에는 자신의 서재에 가득한 장서를 읊고 있으며, 보길도의 낙서재에는 다섯 수레의 서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¹¹ 조선 후기 중국서적의 유입과 장서가의 출현에 관해서는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 ·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후기 문학예술의 생성공간』(소명출판, 1999), pp. 253-276.

¹² 『芥子園畫傳』은 1679년(康熙 18)에 중국 금릉(남경)의 개자원에서 초집인 『山水畫譜』 5권이, 1701년(康熙 40)

이상과 같이 이 『군서목록』에는 중국의 역대 중요한 회화 관련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명대의 저록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렘의 『준생팔전』은 윤두서가 『공재선생묵적』에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필사해 두었다.¹⁴ 또한 이 목록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는 주지번의 『애재집』이 수록되었으며, 윤두서의 서화감상우인 李夏坤(1677-1724)이 보았던 왕세정의 『왕씨화원』, 진계유의 『서화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⁵ 목록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董其昌(1555-1636)의 『容臺集』이 尹斗緒家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원간본은 崇禎 3년(1630)에 진계유가 서문을 쓰고 손자인 董庭이 편집간행하였으며, 문집 9권, 시집 4권, 별집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집에는 그의 대표적인 화론서인 「畫旨」가 실려 있다. 이 문집은 명 말기 葉有聲이 다시 교간하였는데, 尹斗緒家의 소장본은 이 두 본 중 하나일 것이다.¹⁶

이상에서 언급한 회화 관련 서목들은 예술의 원류를 깊이 탐구하고 중국의 회화와 회화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윤두서가 대부분 수집한 책으로 판단되며, 이 서목들과 그의 회화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두서의 회화이론에 미친 중국출판물에 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윤두서의 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국출판물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III. 명 · 청대 화보의 수용

윤두서의 회화는 전통화풍의 계승과 새로운 화풍의 모색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방대한 중국출판물의 독서편력은 신예술을 꽃을 피우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가 운데 윤두서가 이전 시기의 화가들과 달리 다양한 제재를 다루고 남종화법을 본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는 명 · 청대에 출간된 화보의 체계적인 학습에 있었다.

에 2집인 『梅蘭菊竹譜』 8권과 3집인 『花卉草蟲翎毛畫譜』 4권이 간행되었다. 초집과 2집 · 3집의 초판본은 1782년(乾隆 47)에 재판된 이후에도 여러 번 모각 및 번각되었다. 조선 후기 서화가인 柳最鎮(1791-?)의 「題玉山水畫帖」, 『樵山雜著』에서는 “李漁笠翁畫譜”라고 칭하였다. 원문은 吳世昌 著, 東洋古典學會 譯, 『國譯 樵城書畫徵』 하권(시공사, 1998), p. 892.

¹³ 『군서목록』에는 徐謂로 표기됨.

¹⁴ 朴銀順, 앞의 논문.

¹⁵ 李仙玉, 「澹軒 李夏坤의 繪畫觀」(서울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p. 36.

¹⁶ 나카타 유지로(中田勇次郎) 著, 鄭充洛 譯, 『文人畫論集』(미술문화원, 1984), pp. 132-136; 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중국화론선집』(미술문화, 2002), p. 192.

조선 후기 평론가 南泰膺(1687-1740)은 ‘윤두서가 어렸을 적에 『당시화보』와 『고씨화보』를 열심히 베끼면서 연습하였다’고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두 화보는 윤두서의 회화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¹⁷ 윤덕희의 셋째 아들 尹恠(1718-1756)의 부인 의령남씨(1716-1752)는 남태응과 육촌간인 南泰和의 딸이다.¹⁸ 혼인관계로 맺어진 두 가문의 인연으로 보아 남태응의 윤두서에 관한 증언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 윤두서는 사숙할 스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림을 많이 실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보에 의존해서 여러 화가들의 화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

해남 녹우당에 소장된 『顧氏畫譜』(4권 1책)는 윤두서의 회화 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화보이다. 제1면 왼쪽에 윤두서가 “恭齋尹氏墨莊”이라 적고, 그 위에 “恭齋”라는 백문방인과 “道載閣藏”이라는 원형으로 된 朱文藏書印을 날인한 것을 보아도 이 화보가 그가 소중하게 다루었던 애장화보임을 알 수 있다. 路從廣의 삼화가 하나 더 추가되어 도합 107점의 삼화가 수록된 이 화보는 1603년에 顧炳이 출간한 초간본이 아니라 후에 顧三聘과 顧三錫 두 아들에 의해서 발간된 교간본이다. 이와 동일한 판본의 일부가 원주 고관화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¹⁹ 顧愷之의 그림을 비롯한 39점의 그림 왼쪽 상단에 윤두서가 직접 작은 글씨로 각기 그림에 상응하는 제명과 제화시를 부기해 둔 점도 특기할만하다. 이 화보가 『군서목록』에서 누락된 이유는 각 면마다 별지를 두껍게 대어 다시 장첩된 상태라 외관상으로 보면 화첩처럼 보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²⁰

『고씨화보』는 방작한 예를 비롯하여 구도, 암석법, 잡수법, 모티프를 차용한 예에 이르기까지 윤두서의 회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화보이다. 개인 소장 〈平沙落雁圖〉는 蔣嵩의 그림을, 《尹氏家寶》의 〈樹下茅亭圖〉는 文徵明의 그림을, 《윤씨가보》의 〈獅子羅漢圖〉와 〈樹下休息圖〉는 張僧繇의 그림을, 《윤씨가보》의 〈柳下白馬圖〉는 韓幹의 그림을 학습하여 자신

17 “少時偶閱 唐詩顧氏兩畫譜等帖 犁然心契 屈首臨習 凡一點一劃無散放過 期於必似”, 南泰膺, 「畫史」, 『聽竹漫錄』別冊.

18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門中, 『海南尹氏(德井洞)兵曹參議公派世譜(漁樵隱公派)』 1권(精微文化社, 1998), p. 66 에는 尹恠로 되어 있다. 필자는 尹恠, 「祭文」, 『棠岳文獻』 第6冊 중 海南尹氏文獻 卷18 ‘青阜公條에 준하여 윤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19 원주 고관화박물관에 소장된 『고씨화보』는 4권 중 3권은 유실되고 제1권만 남아 있다. 녹우당과 고관화박물관 소장 『고씨화보』의 열람을 허락해주신 윤형식 녹우당주님과 한선학 관장님께 감사드린다. 본고에서 참고한 『고씨화보』는 녹우당 소장본인.

20 녹우당 소장 『고씨화보』 중 황공망부터 그림과 화가의 전기가 적힌 제발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다시 장첩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서로 뒤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도 1 尹斗緒,
〈距石仰鳥圖〉,
《尹氏家寶》,
지본수묵담채,
22×16cm,
녹우당 소장
도 2 『顧氏畫譜』,
吳偉,
녹우당 소장

의 화풍으로 소화시켜 그린 예이다. 《윤씨가보》의 〈高士讀書圖〉, 〈松下納涼圖〉, 〈擊龍圖〉, 《家傳寶繪》의 〈怪石蘭菊竹圖〉는 각각 顧德謙, 仇英, 陳容, 蘇軾의 그림에서 인물, 소나무, 용, 대나무의 모티프를 차용하였다.²¹

《윤씨가보》의 〈距石仰鳥圖〉는 사선으로 치우친 구도 안에 인물을 배치하고 맞은편 상단의 빈 공간에 새 한 두 마리를 포치하는 後期浙派의 화면구도를 취한 그림이다(도 1). 이러한 화면구도는 이 화보의 吳偉의 작품을 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결과로 보인다(도 2).

암석법과 잠수법에 영향을 미친 예도 있다. 《윤씨가보》의 〈擊龍圖〉 중 바위에 구사된 소부벽준은 張路의 그림에서, 《윤씨가보》의 〈春江船遊圖〉의 암석에 표현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른 부벽준과 암석 위에 거칠게 빠른 속도로 찍어 내린 붓질은 蔣嵩의 그림으로부터 습득한 것이다.²² 《윤씨가보》의 〈獲琴看山圖〉와 〈走馬賞春圖〉의 언덕에 묘사된 잡풀묘사도 각각

21 위에서 제시한 작품들은 이영숙, 앞의 논문, pp. 34-70; 박은순, 앞의 책; 許英桓, 「顧氏畫譜研究」, 『誠信研究論文集』 31(성신여자대학교, 1991), pp. 281-302; 同著, 「朝鮮時代の中國畫模倣자들」, 『美術史學』 IV(학연문화사, 1992), p. 26 등에서 밝힌 바 있다.

22 이하 도판을 제시하지 않은 작품들 중 녹우당 소장 《윤씨가보》와 《가진보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家物帖》에 실린 그림들은 박은순, 앞의 책; 同著, 「恭齋 尹斗緒의 繪畫: 《家物帖》과 畫論」, 『人文科學研究』 제6집(德成女子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001), pp. 141-163 참조.



도 3 尹斗緒, 〈望嶽圖〉,
《尹氏家寶》,
지본수묵,
26.6×18cm,
녹우당 소장
도 4 『唐詩畫譜』,
李白的 蛾眉山月歌

戴嵩과 王維의 그림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그밖에 《가전보회》의 〈松攬望洋圖〉에 등장하는 시동, 〈幽林樓鳥圖〉에 보이는 새의 포치법, 《윤씨가보》의 〈石榴梅枝圖〉에 구사된 매화의 仰面을 그리는 법식, 〈群馬圖〉의 소묘풍 말 표현은 각각 李思訓, 黃筌, 揚補之, 陳居中的 그림을 학습한 결과이다. 이처럼 윤두서는 『고씨화보』의 오랜 숙련과정을 통해서 익힌 내용을 작품에 다양하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씨화보』 다음으로 윤두서의 회화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화보는 『당시화보』이다.²³ 이 화보는 『군서목록』이 작성될 때까지는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었다. 《윤씨가보》의 〈望嶽圖〉는 李白의 蛾眉山月歌 삼도 중 널찍한 언덕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인물을 차용하면서 폭포 대신 갈필로 태점을 가한 원산을 후경에 배치하여 남종문인풍 산수인물도로 재해석하여 그린 그림이다(도 3, 4).

《윤씨가보》의 〈樹下午睡圖〉 중 낮잠 자는 인물, 〈雨餘山水圖〉의 수변에 위치한 7자형 누각 두 채와 강물 위를 나는 두 마리 새의 포치, 〈高僧渡海圖〉의 지그재그 형태로 표현된 도식적인 물결, 《가물첩》의 〈山水圖〉 중 심산 절벽에 걸린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원숭이, 〈樵夫

²³ 《윤씨가보》의 〈走馬賞春圖〉와 〈樹下午睡圖〉와 『당시화보』와의 관련양상에 대해서는 박은순, 앞의 책, p. 73과 河香朱, 「朝鮮後期 畫壇에 미친 『唐詩畫譜』의 影響」(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 68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唐詩畫譜』(上海古籍出版社, 1982)를 참고함.

負柴圖)의 樵夫,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醉翁圖〉의 시동에게 몸을 의탁한 만취한 노인은 각각 王維의 春眠, 裴度的 溪居, 皮日休의 閒夜酒醒, 陳淳의 樵夫, 劉禹錫의 夜泊湘川, 高駢의 送春의 삽도를 참고하였다.²⁴

萬曆年間에 출간된 『唐解元做古今畫譜』(淸繪齋刊)는 『군서목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씨화보』 만큼이나 윤두서의 회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화보이다(이하 『당해원방고금화보』는 『고금화보』로 약칭함).²⁵ 『고금화보』는 唐寅이 서문을 쓰고, 山水·人物·花鳥·木石 등의 화제를 다룬 여러 명화가의 작품 48폭과 각 그림에 상응하는 제화시 48수가 함께 실려 있다.

윤두서가 『고금화보』를 숙독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윤두서가 소장했던 『고씨화보』에 남아 있다. 윤두서는 『고씨화보』의 蕭照, 文伯仁, 朱貞孚 그림이 『고금화보』에도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그림들 옆에 실린 제화시들을 자신이 소장한 『고씨화보』의 왼쪽 상단에 動, 船, 試 등 3글자만 바꾸어 기재해 두었다(표 1).

표 1 윤두서가 『고씨화보』에 쓴 제화시와 『고금화보』에 실린 제화시 비교

| 윤두서가 『고씨화보』에 쓴 제화시 | | 『고금화보』에 실린 제화시 | |
|--------------------|-----------------|----------------|-----------------|
| 蕭照 | 竹深留客處 荷動納涼時 | 제84-85면 | 竹深留客處 荷靜納涼時 |
| 文伯仁 | 春水斷橋人喚渡 柳陰撐出小船來 | 제46-47면 | 春水斷橋人喚渡 柳陰撐出小船來 |
| 朱貞孚 | 試看石上藤蘿月 已映洲前蘆荻花 | 제18-19면 | 請看石上藤蘿月 已映洲前蘆荻花 |

윤두서가 蕭照의 그림에 쓴 시는 杜甫의 「陪諸貴公子丈八溝攜妓納涼 晚際遇雨 其一」의 구절이고, 文伯仁의 그림에 쓴 시는 杜甫의 「秋興」 8수 중 제2수의 마지막 두 구절, 그리고 朱貞孚의 그림에 쓴 시는 徐俯의 「春游湖」이다.

윤두서가 『고금화보』를 참고한 예는 남종화계열의 산수화에서 여러 작품들이 확인된다. 《윤씨화보》의 〈林間茅屋圖〉와 〈水涯茅亭圖〉, 《가전보회》의 〈春江船遊圖〉 등은 이 화보에 실린 3점의 倪瓚系 산수도에서 필의를 얻어 개작한 작품들이다. 윤두서의 작품에는 점경인물, 수면 위에 배를 추가시켜 이곳이 단절된 세상이 아님을 암시해 주고 있다.

²⁴ 〈醉翁圖〉는 『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Ⅱ 繪畫篇(鮮文大學校出版部, 2000), 도 54.

²⁵ 박은순, 앞의 책, p. 68에서는 〈水涯茅亭圖〉와 이 화보의 예찬산수도와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中國古畫譜集成』卷6에 수록된 『唐解元做古今畫譜』(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2)를 참고함.



도 5 尹斗緒,
〈釣魚山水圖〉,
《家物帖》, 1708년,
건본수묵,
26.7×15.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6 『唐解元做古今畫譜』,
제60면

《가물첩》 중 1708년 작 〈釣魚山水圖〉는 명대 吳派화풍이 반영된 『고금화보』의 제60면의 그림을 방작한 예이다(도 5, 6). 전경의 언덕에 자라난 나무, 한가롭게 낚시하는 인물, 그리고 화면의 맨 앞에 몇 개의 돌출된 바위의 표현 등에서 방작한 흔적이 보인다. 간송미술관 소장 〈渡橋觀瀑圖〉는 『고금화보』 제66면의 그림에서 얻어진 구도로 후경에 폭포를 두고 전경의 비스듬한 언덕에 빈 정자를 둔 속기가 없는 남종문인화로 재현하였다.²⁶

다음으로 1607년에 양이증이 편찬한 『圖繪宗彝』는 이제까지 윤두서의 회화뿐만 아니라 조선의 유입과 관련되어 논의된 바 없었던 화보이다.²⁷ 그러나 이 화보는 『군서목록』에 실려 있으며, 윤두서가 소장한 『고씨화보』에도 『도회종이』를 본 근거가 남아 있다. 『고씨화보』의 陸探微와 陶成의 그림 왼쪽 상단에 윤두서가 “三教”와 “松鼠”라고 쓴 제명은 『도회종이』 중 동일한 그림의 화면에 적힌 제명과 일치하고, 그밖에 많은 제명들도 관련성이 있다(표 2).²⁸

²⁶ 『潤松文華』 72호(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7), 도 48.

²⁷ 『도회종이』에 관해서는 車美愛, 「中國 花鳥畫譜의 類型과 系譜」, 『美術史論壇』 제22호(한국미술연구소, 2006. 상반기), pp. 134-135. 본고에서는 楊爾曾, 『圖繪宗彝』(享保乙卯 江都書肆嵩山房 須原屋新兵衛刊本)를 참고함.

²⁸ 『고씨화보』의 陸探微, 張僧繇, 顧野王, 閻立德, 吳道子, 戴嵩, 邊鸞, 高宗皇帝, 李公麟, 揚補之, 陳容, 夏珪, 管夫人, 魯宗貴, 趙雍, 商喜, 邊景昭, 戴進, 林良, 杜堇, 沈周, 陶成, 吳偉, 蔣嵩, 朱端, 張路, 錢穀, 張珍, 陳栢, 周之冕 등의 그림들은 『도회종이』에 차용되어 실려 있다. 단 『고씨화보』의 顧野王와 吳道子の 그림은 『도회종이』에는 한 화면으로 조합되어 있다.

표 2 윤두서가 『고씨화보』에 쓴 제명과 『도회종이』 삼도의 제명 비교

| 윤두서가 『고씨화보』에 쓴 제명 | | 『도회종이』의 삼도의 제명 | |
|-------------------|------|----------------|--------------|
| 陸探微 | 三教 | 卷1 人物山水 제5도 | 三教圖 |
| 張僧繇 | 菩薩伏虎 | 卷1 人物山水 제6도 | 松嵩伏虎 |
| 戴嵩 | 水牛 | 卷1 人物山水 제28도 | 耕牛 |
| 李公麟 | 刷象 | 卷1 人物山水 제2도 | 波斯洗象 |
| 林良 | 雙鷹 | 卷2 翎毛花卉草蟲 제21도 | 鷹 |
| 杜堇 | 揚風車 | 卷1 人物山水 제29도 | 揚風米扇 |
| 沈周 | 蠶桑 | 卷6 獸畜蟲魚 제10도 | 桑樹, 簪, 桑椹, 兎 |
| 陶成 | 松鼠 | 卷6 獸畜蟲魚 제9도 | 松鼠, 松 |
| 周之冕 | 芙蓉蘆雀 | 卷2 翎毛花卉草蟲 제20도 | 芙蓉, 荻蘆, 鵲鴿 |



도 7 尹斗緒, 〈掃苔題詩圖〉, 《尹氏家寶》, 지본수묵, 32×46cm, 녹우당 소장



도 8 『圖繪宗彝』 卷1, 〈題壁〉

『도회종이』를 참고한 대표적인 작품은 《윤씨가보》의 〈掃苔題詩圖〉이다(도 7). 바위에 제시를 쓰고 있는 인물을 소재로 다룬 題壁圖는 『畫藪』(1597년)의 「天形道貌」, 『삼재도회』 人事4卷, 『개자원화전』, 『도회종이』에 실려 있다. 그러나 윤두서의 그림은 바위에 글씨까지 묘사한 점, 그 옆에서 벼루를 들고 있는 시동이 두 화보의 시동에 비해 더 크게 그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회종이』 卷1에 실린 〈題壁〉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다(도 8). 비록 화보에서 소



도 9 尹斗緒, <閑居圖>, 《家物帖》, 나무에 수목, 7×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0 『芥子園畫傳』, 「模倣名家畫譜」, <李螢丘梅花書屋圖> 부분

채를 발굴했지만 절벽 대신 너럭바위를 화선지처럼 연출하거나 글씨를 감상하는 인물까지 추가하는 등 윤두서가 화보 그림을 독창적으로 응용한 면모가 엿보인다.

《윤씨가보》의 <高僧渡海圖>는 한 승려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소재로 삼은 그림으로 이 화보에 실려 있는 달마가 양자강을 건너는 그림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두서는 갈대 앞에 몸을 실은 달마의 도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색하여 그렸으며, 고승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지그재그식 물결표현은 『고씨화보』의 장승요와 『당시화보』의 皮日休의 閒夜酒醒 삽도를 각각 참작한 것이다.

그밖에도 張成龍이 편찬한 『張白雲選名公扇譜』(萬曆年間), 『梅蘭菊竹譜』(1621년) 등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²⁹

윤두서는 청대 화보인 『개자원화전』을 조선시대 화가로서는 가장 먼저 소장하고 작품에 활용하였다. 『군서목록』에는 『개자원화전』의 별칭인 '李笠翁畫譜'가 기재되어 있어 『개자원화전』도 1927년에는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³⁰ 『가물첩』의 <閑居圖>는 이 화보의 <李螢丘梅花書屋圖> 중 앞쪽으로 창이 있는 서옥과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인물, 그리고 언덕에 있는 매화나무만을 부각시켜 그려 새로운 유형의 매화서옥도를 만들었다(도 9, 10). 《윤씨

²⁹ 박은순, 앞의 책, p. 47, p. 58.

³⁰ 본고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芥子園畫傳』 初集을 참고함. 김명선은 「朝鮮後期 南宗文人畫에 미친 芥子園畫傳의 영향」(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에서 현존하는 화적 중 이 화보의 영향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연대가 앞선 작품은 정선의 1719년 작인 <사계산수도>로 보았다.

가보》의 〈寒林書屋圖〉는 〈李螢丘梅花書屋圖〉와 〈王右丞詩畫〉의 구도를 활용한 작품이다.

또한 이 화보에 실린 群鳥圖를 차용한 예도 전한다. 《윤씨가보》의 〈花枝鵲雛圖〉는 나무의 일부분만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나뭇가지에 깃들어 있는 점경식 새들을 머리, 양 날개, 꼬리를 네 번의 붓질로 간략하게 묘사한 점에서 이 화보의 雪鴉그리는 법식과 관련성이 있다. 그런가하면 《기물첩》의 〈群鵲圖〉는 나무의 일부만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나무 꼭대기에 무리지어 쉬거나 나무를 향해 날아드는 점경식 새들의 표현 등에서 이 화보의 栖鳥그리는 법식과 상통한다.

樹葉法 중 그가 가장 잘 구사한 夾葉法과 菊花點 등은 여러 화보들에서 보이지만 《윤씨가보》의 〈舟中賞春圖〉에 구사된 杉葉點, 尖頭點, 一字點, 〈春江垂釣圖〉의 卍字間雙勾點, 〈격룡도〉의 偏筆點,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醉翁圖〉의 細垂藤點 등의 수업법은 『개자원화전』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학습은 《윤씨가보》의 〈雪景山水圖〉, 〈觀水圖〉, 〈林間茅屋圖〉, 《가전보회》의 〈春江船遊圖〉에서 각각 구사된 郭熙, 米芾의 遠樹法, 버드나무를 그리는 법, 董源의 원수법에도 잘 나타난다. 인물표현의 경우 《가전보회》의 〈獲琴觀月圖〉의 거문고를 소매 밑으로 넣고 있는 인물의 자세, 《윤씨가보》의 〈江岸山水圖〉의 짐 꾸러미가 양쪽에 달린 장대를 어깨에 메고 가는 점경식 인물, 《家物帖》의 〈高士閑居圖〉의 차를 끓이는 시동의 모습 등은 이 화보를 통해서 익힌 것들이다.

윤두서는 1679년에 간행된 『개자원화전』 초집의 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지만 1701년에 간행된 2집인 『梅蘭菊竹譜』와 3집인 『花卉草蟲翎毛畫譜』를 참고한 예를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어서 윤두서가 소장한 『개자원화전』은 초집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윤두서는 화보의 도상을 그대로 임모하지 않고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조선식 문인화풍으로 재해석해 낸 뛰어난 회화적 기량을 발휘한 화가임 확인할 수 있다.

IV. 백과전서 · 목보 · 소설삽화 · 서양화법의 수용

1. 백과전서 · 목보 · 소설삽화의 수용

윤두서는 명 · 청대 화보뿐만 아니라 백과전서, 목보, 소설 및 희곡의 삽화도 회화에 수용하였다. 백과전서인 『삼재도회』는 『군서목록』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윤두서와 윤덕희



도 11 尹斗緒, 〈周禮兵車之圖〉, 《尹氏家寶》, 지본수묵진채, 24.4×36.2cm, 녹우당 소장



도 12 『三才圖會』, 「器用」5卷, 〈秦小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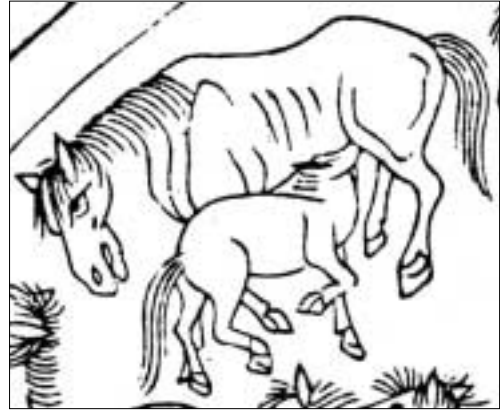
의 회화에 영향을 미친 책이다.³¹ 이 책은 특히 윤두서가 성현도와 도석인물화를 그리는 데 주로 참고하였다. 《가전보회》의 〈神仙圍碁圖〉는 이 책의 〈寫意圖〉 중 구경하는 인물만 제외하고 바둑 두는 세 인물들과 시동을 차용하여 수하인물도로 변형시켜 그린 예이다.

《윤씨가보》의 〈周禮兵車之圖〉가 모델로 삼은 그림은 『삼재도회』에 실린 〈秦小戎圖〉이다(도 11, 12). 네 필의 준마와 여섯 고삐를 손에 잡고 있는 갑옷 입은 인물, 고삐에 맨 쇠고리, 큰 바퀴 두 개가 있는 수레 등은 『삼재도회』의 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머지 다르게 그린 요소들은 윤두서가 『詩經 秦風』의 '小戎章'의 내용을 참고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병거를 끄는 인물이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는 이 책의 「衣服」3권에 실린 「頭鑿」를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그린 점에서 실사에 비추어 증험하는 윤두서의 실득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윤두서는 먹의 표면을 장식하는 그림들을 판화로 인쇄한 명대 文房四寶인 墨譜를 열람하였다. 『군서목록』에 서목이 실린 方于魯의 『方氏墨譜』(1588년)와 程大約의 『程氏墨苑』(1606년)은 조선에 유입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윤두서가 회화에 활용한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윤두서가 소장했음을 알 수 있다.³² 『방씨묵보』는 丁雲鵬(1547-1621 이후),

31 윤두서의 회화에 미친 『삼재도회』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이내옥, 앞의 책, pp. 187-191, pp. 210-242; 윤덕희의 회화에 미친 『삼재도회』의 영향에 관해서는 차미애,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p. 76-80. 본고에서는 王圻, 『三才圖會』6冊(臺北: 成文出版社有限公司, 1970)을 참고함.

32 본고에서는 方于魯 編, 吳有祥 整理, 『方氏墨譜』(山東畫報出版社, 2004), 程大約, 『程氏墨苑』中國古代版畫叢刊



도 14 『程氏墨苑』, 「物華上」, 〈百子駿〉 부분

도 13 尹斗緒, 〈馬圖〉, 지본담채, 23.9×19.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吳左千, 俞仲康 등이 그림을 그렸고, 黃德時와 黃德懋가 새겨 美蔭堂에서 간행되었다. 『정씨목원』은 정운봉이 그림을 그리고 徽州 출신의 黃氏木刻名工인 黃燐, 黃應泰, 黃應道 등이 새겨 歙縣 程氏滋蘭堂에서 간행되었다.³³

윤두서가 『정씨목원』과 『방씨목보』에 실려 있는 삼도를 차용한 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馬圖〉이다(도 13, 14). 윤두서와 윤덕희 부자는 말 그림으로 당대 화명을 떨쳐 朴師海(1711-?)는 그들을 각각 大尹과 小尹으로 불렀으며, 윤두서는 마른 말을 윤덕희는 살찐 말을 잘 그렸다고 하였다.³⁴ 이 작품은 윤두서가 마른 말을 그린 현전하는 유일한 예이다. 빼만 앙상하게 드러낸 수척한 어미 말과 젖을 빠는 새끼 말을 소재로 삼은 이 그림은 『정씨목원』과 『방씨목보』에 실려 있는 〈百子駿〉에 등장하는 여러 말들 가운데 어미 말과 젖을 먹고 있는 새끼 말을 차용하여 윤두서의 탁월한 사생력으로 龔開의 〈駿骨圖〉와 비견될 정도로 그린 것이다.

『정씨목원』에만 실려 있는 삼도를 활용한 예는 《가전보회》의 〈戲龍行雨圖〉이다(도 15, 16). 용이 구름을 희롱하여 비를 뿌리는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한 이 소재는 『정씨목원』에 실려 있는 〈作霖雨〉에서만 발견되어 윤두서가 이 목보를 봤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6(上海古籍出版社, 1994) 참고함.

³³ 이 책의 서지사항은 方于魯 編, 吳有祥 整理, 앞의 책, p. 104; 周心慧, 『中國古版畫通史』(學苑出版社, 2000), pp. 159-161; 고바야시 히로미쓰 지음, 김명선 옮김, 『중국의 전통판화』(시공사, 2002), pp. 89-94.

³⁴ “余觀大小尹墨馬多矣 大作瘦 小作肥”, 朴師海, 「題小尹駱西墨馬」, 『蒼岩集』.



도 15 尹斗緒, <戲龍行雨圖>, 《家傳寶繪》, 지본수묵진채, 29.6×25.6cm, 녹우당 소장



도 16 『程氏墨苑』, 「女工下卷」, <作霖雨>

그림 하단 부분의 빗줄기, 용의 눈, 코, 눈썹, 뿔, 입 주변의 수염, 앞으로 휘날리는 머리털의 형세까지 이 묵보의 <作霖雨>에 표현된 용과 닮았다.

윤두서는 중국출판물의 활용범위를 넓혀 선구적으로 소설과 희곡삽화도 작품에 수용하였다. 윤두서의 행장에 '쾌관소설을 모두 읽어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술회한 바와 같이,³⁵ 그는 『군서목록』에 실려 있는 소설과 희곡들을 대부분 읽은 것으로 생각된다. 『군서목록』에 있는 소설 중 윤두서의 회화에 있어서 뚜렷한 영향관계가 파악된 예는 『隨唐演義』, 『忠義水滸傳』, 『八仙出處東遊記』에 실린 삽화이다.³⁶

소설삽화가 작품의 구도에 미친 예는 《十二聖賢畫像帖》에서 발견된다(도 17). 주자와 그 제자들을 그린 그림은 2/3 부분만 표현된 건물의 내부에 인물들을 배치하고, 일부분만 그린 지붕과 계단 부분이 평행 사선을 이루고, 안쪽 기둥으로부터 앞으로 갈수록 약간 사선으로 벽이 기울어지게 그린 화면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공간구성법은 윤두서

³⁵ “乃至稗官小說 無不涉獵 以爲多識之助”, 尹德熙, 『恭齋公行狀』, 앞의 책.

³⁶ 『군서목록』에 실린 소설과 희곡 서목은 차미애, 「近畿南人書畫그림의 金剛山紀行藝術과 駱西 尹德熙의 『金剛遊賞錄』, 『美術史論壇』 제27호(韓國美術研究所, 2008), p. 197의 주 59 참조.



도 17 尹斗緒,
《朱子와 제자들》,
《十二聖賢畫像
帖》, 건본수묵,
31.2×4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8 『隨唐演義』 삽도,
萬曆年間 武林書
房刊本 首都圖書
館 소장

가 『수당연의』의 삽화에서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도 18).

《윤씨가보》의 〈擊虎圖〉는 인물이 호랑이를 잡으려는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다(도 19). 칼을 휘두르는 인물과 뇌신이 함께 등장한 그림은 『忠義水滸傳』 삽화 제60회인 公孫勝이 芒碩山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보인다(도 20). 윤두서는 마귀 대신 호랑이를 잡는 장면으로 응용하여 그렸다.³⁷

《윤씨가보》의 〈擊龍圖〉는 선행연구에서는 『삼재도회』 人物 11卷에 실린 〈許遜〉의 고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도 21).³⁸ 그러나 화면의 오른쪽에 呂洞賓을, 화면의 왼쪽에 넓은 수면과 용을 배치한 점, 여동빈이 보검을 회수에 던지려는 포즈를 취한 점 등은 吳元泰의 『八仙出處東遊記』 중 〈洞賓飛劍江淮蛟精〉와 더 관련성이 있다(도 22).³⁹ 이 책은 『해남윤씨장서

37 『수호전』은 송대 松江의 반란사건을 토대로 한 梁山泊에 모여든 108명의 호걸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작자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羅貫中과 施耐庵으로 압축된다. 이 책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繁本과 간략하게 기술한 簡本이 있다. 번본 중에는 100회본, 120회본, 70회본 등이 있다. 100회본으로는 1589년 『충의수호전』과 1600년 容興堂에서 간행된 『李卓吾先生批評忠義水滸傳』이 있다. 120회본으로는 명대 袁無涯가 간행한 것이 있는데, 70회본으로는 金聖歎이 100회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개작한 것이 있다. 서경호, 『중국소설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 377. 본고에서 참고한 『수호전』은 容興堂刊本임.

38 李乃沃, 앞의 책, pp. 187-191.

39 『八仙出處東遊記』는 1566년경 吳元泰가 편찬하고 余象斗가 간행한 소설로 팔선고사에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여동빈은 득도한 후 안휘성 일대를 유람하였는데, 그 무렵 회수 지역에 요사한 교룡 한 마리가 출현하여 때로는 마을의 민가를 쓰러뜨리거나 큰 풍랑을 일으켜 왕래하는 배를 전복시켰다. 그 곳의 지



도 19 尹斗緒, 〈擊虎圖〉, 《家傳寶繪》, 지본수묵, 26.2×63.6cm, 녹우당 소장



도 20 『忠義水滸傳』 제60회 〈公孫勝芒碩山降魔〉, 明 容與堂刊本 北京圖書館 소장



도 21 尹斗緒, 〈擊龍圖〉, 《尹氏家寶》, 지본수묵담채, 21.6×19.6cm, 녹우당 소장

도 22 吳元泰, 『八仙出處東遊記』, 〈洞賓飛劍江淮蛟精〉, 日本 內閣文庫 소장

방관은 여동빈에게 요괴를 퇴치해 달라고 간청했다. 여동빈은 회수의 강가로 나아가 칼을 빼들고 검무를 추다가 요괴를 꾸짖으며 큰 소리와 함께 칼을 강물에 던졌다. 잠시 후 회수의 강물이 온통 붉어지면서 큰 교룡의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吳元泰, 『八仙出處東遊記』는 日本 內閣文庫藏 영인본으로 古本小說集成編委會 編, 『古本小說集成』 120(上海古籍出版社, 1990)에 실려 있는 책이다.



도 23 尹斗緒, 〈女俠圖〉,
《尹斗緒傳金埴退
村等筆畫集》,
건본수목,
23.9×13.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24 『盛明雜劇三十種』
중 梁辰魚,
「紅線女」,
〈紅線女夜竊黃金
盒〉,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윤덕희가 1762년에 자신이 본 총 127종의 소설을 기록해 둔 「小說經覽者」에도 포함되어 있어 윤두서가 소장한 책으로 보인다.⁴⁰

검을 찬 여인이 공중을 나는 모습을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女俠圖〉는 중국 唐代 전기소설인 「紅線傳」의 주인공인 紅線이다(도 23). 윤두서가 이 소재를 그리게 된 경로는 『군서목록』에 실린 『太平廣記』와 『盛明雜劇』으로 파악된다. 「홍선전」은 唐 咸通 9년(868)에 袁郊가 지은 『甘澤謠』에 들어 있는 소설 9편 중 하나로 『태평광기』 卷195 豪俠 3에 채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 보면, 당나라 潞州節度使 薛嵩의 여종인 홍선은 설승과 인척관계인 魏博절도사 田承嗣가 몰래 군사를 길러 潞州를 칠 계획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전승사의 막사에 몰래 잠입하여 황금상자(金盒)만 훔쳐 새벽에 다시 돌아왔다. 설승은 새벽에 사신을 파견하여 훔쳐온 황금상자를 편지와 함께 위박성으로 보내자 전승사는 이를 받고 놀라면서 설승을 해치려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다.⁴¹ 윤두서의 〈여협도〉는 여주인공인 홍선이 검을 가슴 앞쪽에 차고 오른손에 합을 들고 공중을 날고 있는 도상적 특징으로 미루어 보면 홍선이 적진인 위박절도사 전승사의 막사에 몰래 들어가 황금합을 훔쳐

⁴⁰ 윤덕희의 「소설경람자」에 관해서는 차미애,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美術史學研究』 240호(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11-13.
⁴¹ 「홍선전」은 김현룡 책임감수, 김종근 편역, 『중국 전기 소설선』(박이정, 2005), pp. 297-304.



도 25 尹斗緒,
 〈焚香告天圖〉,
 《家物帖》,
 저본수묵,
 19.9×13.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26 焦竑, 『養正圖解』
 下卷 제29도 〈焚香告天〉, 1597년玩委
 別藏本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여협도〉는 『태평광기』뿐만 아니라 명대 잡극을 모아 놓은 『盛明雜劇三十種』 중 梁辰魚의 「紅線女」에 실린 삽도 〈紅線女夜竊黃金盒〉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24).⁴² 梁辰魚의 「紅線女」에 실린 삽도는 전승사의 막사에 몰래 잠입하여 황금상자를 훔쳐 구름을 타고 가는 홍선과 막사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전승사와 시종들이 화면에 담겨져 있다. 이 삽도의 오른손에 황금상자를 들고 하늘을 나는 홍선의 모습, 홍선의 발밑에 보이는 깃발 등은 윤두서의 〈여협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³

焦竑(1540-1620)이 1594년에 편찬한 『養正圖解』는 『군서목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윤덕희가 기록해 둔 「小說經覽者」에 포함되어 있다. 윤두서가 이 책의 하권 제29도 〈焚香告天〉 삽도를 활용하여 그린 《가물첩》의 〈焚香告天圖〉가 전한다(도 25, 26). 이 책은 초횡이 皇太子講官으로 재직시 황태자에게 帝王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감계서로서 총 60가지의 역사상 모범이 될 만한 글과 그에 해당하는 삽도가 실려 있으며, 삽도는 명대 화가인 정운봉이 그리고 黃奇가 새겼다.⁴⁴

⁴² 본고에서 참고한 책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盛明雜劇三十種』 崇禎己巳(1629)仲春 張元徵題(上海: 中國書店影印本) 卷21, 梁辰魚 編, 「紅線女」.

⁴³ 윤두서의 〈여협도〉에 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칼럼 2009년 11월 23일자에 소개한 바 있다.

⁴⁴ 『양정도해』는 輔德 李彥經이 燕京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얻어와 어전에 헌상하였으며(『숙종실록』 39권, 30년

『양정도해』의 〈분향고천도〉는 북송대 청렴한 관리인 趙抃(1008-1084)이 의관을 갖추고 밤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하늘에 고하는 고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변은 侍御史가 되어 권신들을 거리낌 없이 탄핵하자 철면어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成道 재임시 한 마리의 거북이와 한 마리의 학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으며, 매일 밤마다 그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이슬의 향기를 맡으며 하늘에 고하는 것을 일로 삼았다.⁴⁵ 화면의 왼쪽에 “분향고천”이라고 표기한 점, 복두를 쓰고 군신복 차림을 한 조변이 궤 위에 향을 피워놓고 하늘을 향해 절하는 모습, 시동을 대동한 점 등을 통해서 윤두서의 이 작품이 『양정도해』의 삽화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특별히 조변의 고사를 선택하여 제재로 삼은 것은 당쟁의 격화로 권신들의 부패가 많았던 시대에 조변과 같은 청백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린 듯하다.

이상과 같이 윤두서는 백과전서, 묵보, 소설 및 잡극삽화들의 소재, 화법, 구도 등을 자신의 작품에 다양하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서양화법의 수용

윤두서는 서학에 관심이 있었고 서양화법도 선구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인 閔明我(Philippus Maria Grimaldi)가 1711년에 펴낸 서양의 천문서인 『方星圖』(녹우당 소장)는 윤두서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윤두서가 서양화법을 선구적으로 수용한 면모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서양화법을 구사한 실례로는 〈자화상〉에

[1704 갑신] 5월 29일, 같은 해 숙종이 이 책을 감상한 후 서문을 쓰고 이 책에 실린 고사를 언급한 사실(『列聖御製』 3, pp. 83-86)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미나, 「18세기 전반기의 詩文 古事 繪畫帖 考察 -《萬古奇觀》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호(한국불교미술학회, 2005), p. 139; 이성훈, 「숙종대 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美術史學研究』 262호(한국미술사학회, 2009), pp. 46-51. 『承政院日記』 第1047冊, 영조 25년 8월 14일 庚寅條에 의하면, “上曰 其中圖書雖印出 而必不如唐畫矣 繪事後素 雖祛其圖 似爲無妨 而無畫則名實不相適 有畫然後可以相稱 不可無畫矣”라고 밝히고 있듯이 영조는 그림을 인출하되 반드시 중국 그림과 같지 않아도 되며 흰 바탕에 그려야한다고 하면서 그림이 없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749년(영조 25)에 왕명에 의해 국내에서 재간행된 『양정도해』 2책(奎中 1823-v.1-2)에는 상책 卷頭に 甲申(1704) 숙종의 서문과 하책 末尾에 己巳(1749) 영조의 발문이 있으며 삽도는 모두 제외시켰다. 따라서 윤두서가 본 책은 삽도가 실려 있는 명대간본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597년 玩委別藏本을 영인한 焦竑, 『養正圖解』(臺北: 臺灣商務印書院, 1981)를 참고함.

⁴⁵ “趙抃字閱道 宋至和中 爲侍御史 彈劾不避貴戚 京師號爲鐵面御史 任成道以一龜一鶴自隨平生 日所爲事 夜必衣冠露香拜告於天 若不可告者 不敢爲也”, 『焚香告天』, 焦竑, 위의 책, pp. 233-235.

⁴⁶ 방성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일권, 「신법천문도 방성도(方星圖)의 자료 발굴과 국내 소장본 비교 고찰」, 『조선의 과학문화재』(서울역사박물관, 2004), pp. 132-169.

보이는 서구적인 입체화법이 엿보이는 치밀한 세밀 묘사,⁴⁷ 《윤씨가보》의 〈石榴梅枝圖〉, 〈菜果圖〉, 〈旋車圖〉 등에 보이는 음영표현 등을 들었다.⁴⁸ 근대적 정물화와 음영법이 적용된 〈채과도〉는 이와 유사한 서양화를 보았을 가능성도 지적되었다.⁴⁹ 이상에서 언급된 작품들에 표현된 그의 서양화법의 특징은 비록 빛에 의한 명암법은 아니지만 입체화법 즉 음영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로 압축할 수 있다.

윤두서가 서양화법을 시도한 시기와 서양화법을 수용한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서양화의 유입은 李宜顯(1669-1745)이 1720년 동지사행정사로 갔을 때 매입해 왔던 ‘西洋國畫’로부터 보고 있다.⁵⁰ 이때는 윤두서가 사망한 이후이므로 그는 조선에 유입된 서양화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윤두서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의 기하학 원리와 서양화 개념 및 기법을 연구하여 서양화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⁵¹ 그러나 이익이 보았다는 원근법의 지침이 되는 마테오 리치의 『기하원본』과 아담 샬(湯若望, 1591-1666)이 1626년 한문으로 편술한 『遠鏡說』과 같은 한역서학서들은 『군서목록』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았다고 입증할만한 문헌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⁵²

윤두서가 서양화법을 이해한 경로 중 하나는 『군서목록』에 실린 程大約의 『程氏墨苑』으로 파악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두서는 『정씨묵원』의 삼도를 작품에 활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마테오 리치로부터 받은 4점의 기독교 삽화들은 그가 접한 유일한 서양화로 볼 수 있다.⁵³ 〈세비아의 성모자〉의 옷에는 명암법이 뚜렷하게 보이며, 나머지 〈베드로

47 이태호, 앞의 논문, p. 77.

48 이영숙, 앞의 논문, p. 17, p. 37, pp. 69-70.

49 이내옥, 앞의 책, p. 142. 그러나 그릇에 과일이 담겨진 정물 그림은 方于魯, 『方氏墨譜』 卷6, 「鴻寶」 중 〈靈寶眞一墨〉에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서양화의 전래기록이 없어 서양의 정물화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따른다.

50 한정희, 『영·정조대의 회화의 대중교섭』, 『한국과 중국의 회화』(학고재, 1999), p. 282; 홍선표, 『朝鮮時代 繪畫史論』(문예출판사, 1999), p. 292;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대원사, 2000), p. 87.

51 박은순, 앞의 책, p. 18, p. 76; 이내옥, 앞의 책, p. 142.

52 이익의 서양화법에 관한 연구는 洪善杓, 「朝鮮 後期の 繪畫觀—實學派의 繪畫觀을 중심으로」, 『山水畫』 下一韓國의 美 12(中央日報·季刊美術, 1982), pp. 221-226.

53 『程氏墨苑』 卷6에 실려 있는 기독교 삽화는 程大約이 1605년 말경에 南京 總督인 祝石林의 소개장을 가지고 북경에 있는 마테오 리치를 만나서 받은 것이다. 4점의 그림 중 〈세비아의 성모자〉를 제외한 나머지 3점에는 마테오 리치의 주석이 있다. 〈세비아의 성모자〉는 오른쪽 아래에 “in Sem Japo”라고 새긴 글자가 있어 1597년 일본의 세미나리오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씨묵원』 삽화에 관해서는 向達, 「明清之際中國美術所受西洋之影響」, 『東方雜誌』 第27卷 第1號(1930)(『唐代長安與西域文明』,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1, pp. 483-529 재

를 부르는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그리스도〉, 〈소돔의 파멸〉 등의 세 작품에는 원근법이 구사되어 있다.

또한 『해남윤씨군서목록』에 포함된 고기원의 『객좌취어』에도 서양화법이 언급되어 있다. 고기원은 마테오 리치가 남경에 체류한 1599년부터 1600년경 사이에 만났던 인물이다.⁵⁴ 고기원의 『객좌취어』 중 「利瑪竇」조에는 이마두의 용모, 서양화법, 동판화, 자명종, 이마두의 저서, 이마두의 제자, 서양의 음식 등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테오 리치가 서양 인물화에 표현된 명암법을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그림은 양(빛이 비치는 곳)만 그리고 음(그림자가 지는 곳)을 그리지 않아서 사랑의 얼굴과 몸이 평면적으로 보이고 요철이 없다. 우리나라의 그림(서양화)은 음과 양을 겸비해서 그리기 때문에 얼굴에 高下가 있고, 손과 팔이 모두 둥그스름해진다. 무릇 사람의 얼굴은 정면으로 빛을 받으면 모두 밝고 하얗다. 측면으로 빛을 받으면 밝은 부분은 하얗지만 빛을 받지 않은 한쪽은 눈, 귀, 코, 입의 오목한 부분에 모두 어두운 형상이 있다.⁵⁵

이상의 두 책에서 인물화의 서양화법을 다룬 내용은 윤두서의 인물화에 구현된 음영법과 상관성이 있다.

윤두서가 서양화법을 시도한 시기는 조선 후기 서양화법의 유입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년작을 대상으로 추급해 볼 필요가 있다. 1706년 여름경에 李衡祥(1653-1733)에게 그려준 五聖像 중 〈周公像〉에는 윤곽선만으로 그린 데 비해,⁵⁶ 같은 해 9월 24일

수록): Michael Sullivan, "Some Possible Sources of European Influence on Late Ming and Early Ch'ing Painti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Painting*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1970), pp. 606-607; 小林宏光, 「明末繪畫と西洋畫法の遭遇」, 青木茂·小林宏光 監修, 『中國の洋風畫展: 明末から清時代の繪畫・版畫・挿繪本』(町田: 町田市立國際版畫美術館, 1995), p. 126; 조너선 D. 스펜스 저, 주원준 옮김,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이산, 1999), pp. 91-95, pp. 175-179, pp. 261-263; 顧衛民, 『基督宗教藝術在華發展史』(上海書店出版社, 2005), pp. 121-122.

⁵⁴ 韓延姬, 「마테오 리치와 交流한 漢人士大夫」, 『명청사연구』 14호(명청사학회, 2001), p. 59.

⁵⁵ "中國畫 但畫陽 不畫陰 故看之人面軀正平 無凹凸相 吾國畫 兼陰與陽寫之 故面有高下 而手臂皆輪圓耳 凡人之面 正迎陽 即皆明而白 若側立 即向明一邊者白 其不向明一邊者 眼耳鼻口凹處皆有暗相", 顧起元, 「利瑪竇」, 『客座贅語』 卷6(北京: 中華書局, 1991), p. 154.

⁵⁶ 李定宰 編纂, 『瓶窩年譜』(淸權祠, 1979) 1706년 숙종 32 丙戌 54세조에는 1706년 여름에 영광군수를 그만두고 영천으로 돌아갔는데 진사 윤두서에게 오성상을 그리게 하여 벽감에 안치해 두고 때때로 분향하고 추모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윤두서가 이형상에게 그려준 오성상은 〈箕子像〉, 〈周公像〉, 〈孔子像〉, 〈顔子像〉, 〈朱子像〉 등으로 현재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진주이씨 병와공파종중에 소장되어 있다.



도 27 尹斗緒, 〈周公像〉,
1706년, 견본수목,
43.5×21.6cm,
전주이씨 병와공파중중
소장

도 28 尹斗緒, 〈周公像〉 부분,
《十二聖賢畫像帖》,
1706년 9월 24일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李潛(1660-1706)이 사망한 얼마 이후에 제작한 《十二聖賢畫像帖》 중 〈주공상〉에서부터 안면과 옷주름의 어두운 부분에 음영이 가해져 있다(도 27, 28).⁵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11년 작 〈沈得經像〉에서는 음영을 한결 자연스럽게 살리고 있으며, 〈自畫像〉에서는 윤곽선이 완화되고 이목구비의 어두운 부분에 음영을 부드럽게 주고 있다. 따라서 윤두서는 『정씨목원』에 실린 〈세비아의 성모자〉에서 옷주름에 음영을 넣는 방법을, 『객좌취어』의 내용에서 인물의 안면에 음영을 넣는 방법을 익힌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화에 시도했던 음영법을 기물에 활용한 예는 《윤씨가보》의 〈石榴梅枝圖〉이다.

이상과 같이 윤두서가 구사한 서양화법은 안면과 옷주름, 그리고 기물에 음영을 넣는 정도였다. 윤두서는 마테오 리치와 접촉했던 중국인들이 저술한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서양화법에 관한 지식을 접하고 이것을 1706년 이후부터 작품에 직접 실험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터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양화법의 시도는 그가 추구하는 사실주의적 形似觀과 實得정신이 모두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57 李潛, 「十二聖賢畫像帖贊 并序」, 『星湖先生全集』 卷48.

V.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서 윤두서는 중국출판물들을 섭렵하면서 회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서양화법을 깨우친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진보적인 화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광박한 백과전서식 학문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1927년부터 1928년에 걸쳐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한 『해남윤씨군서목록』에 수록된 서화관련 서목들은 윤두서의 중국 출판물의 활용범위를 넓혀서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림을 전수받을 만한 스승이 없었던 그가 절파화풍에 머물러 있었던 화단의 누습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화가로서 일가를 이루는 데 영향력을 미친 명·청대 화보는 『고씨화보』, 『당시화보』, 『도회종이』, 『당해원방고금화보』, 『장백운선명공선보』, 『매난국죽보』, 『개자원화전』 등이다. 이전 시기의 화가들은 『고씨화보』와 『삼재도회』를 회화에 소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윤두서의 중국출판물의 활용범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방대했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중국의 여러 화가들의 화법의 묘처를 터득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남종화법을 수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윤두서가 『개자원화전』 초집을 가장 먼저 수용한 사실을 통해서 화보의 조선 유입 시기가 윤두서의 졸년인 1715년 이전으로 확정되었다. 그밖에도 목보인 『방씨목보』와 『정씨목원』뿐만 아니라 중국소설을 탐독한 독서취향에 힘입어 『수당연의』, 『충의수호전』, 『태평광기』, 『성명잡극』, 『팔선출처동유기』, 『양정도해』와 같은 소설 및 회곡삽화까지 회화에 선구적으로 활용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윤두서가 1706년 이후에 구사한 서양화법은 마테오 리치와 접촉했던 인물들이 저술한 『정씨목원』과 『객좌취어』를 참고하여 자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윤두서는 조선 후기 화가들 가운데 선구적으로 다양한 중국출판물을 회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화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서적들을 통해 습득된 지식의 축적물들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문인취향을 가미하여 여러 화목에 걸쳐 신감각풍의 문인화를 구현해 낸 뛰어난 회화적 기량을 지닌 화가임을 알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__ 海南尹氏群書目錄(Haenam Yunssi Gunseo Mongnok[List of Books Collected by Haenam Yun Clan]), 尹斗緒(Yun Du-seo), 中國出版物(Chinese Publications), 西洋畫法(Western painting methods)

▣ 투고일 2009년 8월 20일 | 심사개시일 2009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2009년 10월 28일 ▣

참고문헌

1. 원전, 화보, 족보

- 『芥子園畫傳』初集,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고서759.12이73).
- 顧起元, 『客座贅語』, 北京: 中華書局, 1991.
- 『顧氏畫譜』(顧三聘·顧三錫 校刊), 녹우당 소장.
- 『管窺輯要』80卷 25冊(筆寫本), 녹우당 소장.
- 『棠岳文獻』6冊, 한국학중앙연구원 마이크로필름(No 001217).
- 南泰膺, 『聽竹漫錄』別冊.
- 『唐解元做古今畫譜』中國古畫譜集成 卷6,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2.
- 朴師海, 「題小尹駱西墨馬」, 『蒼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盛明雜劇三十種』崇禎己巳(1629)仲春 張元徵題, 上海: 中國書店影印本,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 方于魯 編, 吳有祥 整理, 『方氏墨譜』, 山東畫報出版社, 2004.
- 楊爾曾, 『圖繪宗彝』7卷, 享保乙卯 江都書肆嵩山房 須原屋新兵衛刊本(和刻本).
- 『揚輝算法』2冊(筆寫本), 녹우당 소장.
- 吳元泰, 『八仙出處東遊記』古本小說集成編委會 編, 『古本小說集成』120, 上海古籍出版社, 1990.
- 王圻, 『三才圖會』6冊(明·萬曆三十五年刊本), 臺北: 成文出版社有限公司, 1970.
- 尹斗緒, 『記拙』, 녹우당 소장.
- 李漢, 『星湖先生全集』, 景仁文化社, 1974.
- 李夏坤, 『頭陀草』韓國文集叢刊 191, 民族文化推進會, 1997.
- 李衡祥, 『國譯瓶窩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張白雲, 『名公扇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程大約, 『程氏墨苑』中國古代版畫叢刊 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焦竑, 『養正圖解』, 臺北: 臺灣商務印書院, 1981.
-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門中, 『海南尹氏(德井洞)兵曹參議公派世譜(漁樵隱公派)』1卷, 精微文化社, 1998.
- 朝鮮史編修會 編, 『海南尹氏群書目錄』(昭和 16년 謄寫),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洪自誠, 『洪氏仙佛奇蹤』, 臺北: 自由出版社, 1988.
- 『畫譜』第1冊: 唐寅 編, 唐詩畫譜, 第2冊: 唐寅 編, 古今畫譜, 第3冊: 翰臣 編, 木本花鳥譜, 第4冊: 陳繼儒 編, 名公扇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黃鳳池 輯, 『唐詩畫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青木恒三郎 編, 『八種畫譜』, 大阪: 青木嵩山堂, 明治 34[1901].

2. 국문논저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후기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pp. 253-276.

김명선, 「朝鮮後期 南宗文人畫에 미친 芥子園畫傳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김현룡 책임감수, 김종근 편역, 『중국 전기 소설선』, 박이정, 2005.

나카타 유지로(中田勇次郎) 著, 鄭充洛 譯, 『文人畫論集』, 미술문화원, 1984.

朴銀順, 「恭齋 尹斗緒의 繪畫: 尙古와 革新—海南尹氏 家傳古畫帖을 중심으로—」, 『海南尹氏家傳古畫帖』, 文化體育部 文化財管理局, 1995.

_____, 「恭齋 尹斗緒의 書畫: 尙古와 革新」, 『美術史學研究』 206호, 한국미술사학회, 2001, pp. 101-130.

_____, 「恭齋 尹斗緒의 畫論: 《恭齋先生墨蹟》」, 『美術資料』 第67號, 국립중앙박물관, 2001, pp. 89-117.

_____, 「恭齋 尹斗緒의 書畫: 《家物帖》과 書論」, 『인문과학연구』 6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 141-163.

송일기, 노기춘,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1·2冊, 태학사, 2003.

吳世昌, 東洋古典學會 譯, 『國譯 檣域書畫徵』, 시공사, 1998.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古事 繪畫帖 考察—《萬古奇觀》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호, 한국불교미술학회, 2005, pp. 123-155.

李乃沃,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李東洲·崔淳雨·安輝濬, 「좌담 恭齋 尹斗緒의 繪畫」, 『韓國學報』 第17輯, 一志社, 1979년. 겨울, pp. 162-181.

李仙玉, 「澹軒 李夏坤의 繪畫觀」, 서울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李成美, 『조선후기 그림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이성훈, 「숙종대 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美術史學研究』 262호, 한국미술사학회, 2009, pp. 33-68.

李英淑, 「恭齋 尹斗緒의 繪畫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李定宰 編纂, 『瓶窩年譜』, 淸權祠, 1979.

李泰浩, 「恭齋 尹斗緒—그의 繪畫論에 대한 研究」, 『全南地方의 人物史研究』, 全南地方開發協議會研究諮問委員會, 1983, pp. 71-122.

- _____,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 조너선 D. 스펜스 저, 주원준 옮김,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이산, 1999.
- 車美愛,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美術史學研究』 240호, 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5-50.
- _____, 「中國 花鳥畫譜의 類型과 系譜」, 『美術史論壇』 제22호, 한국미술연구소, 2006. 상반기, pp. 131-165.
- _____, 「海南 綠雨堂 소장 筆寫本 『管窺輯要』의 考察」, 『歷史學研究』 제31집, 湖南史學會, 2007, pp. 31-70.
- _____, 「近畿南人書畫그룹의 金剛山紀行藝術과 駱西 尹德熙의 『金剛遊賞錄』」, 『美術史論壇』 제27호, 韓國美術研究所, 2008, pp. 173-221.
- 차중천, 「녹우당 소장 『揚輝算法』의 位相」,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1冊, 태학사, 2003, pp. 137-156.
- 河香朱, 「朝鮮後期 畫壇에 미친 『唐詩畫譜』의 影響」, 韓國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韓延姪, 「마테오 리치와 交流한 漢人士大夫」, 『명청사연구』 14호, 명청사학회, 2001, pp. 33-66.
- 한정희, 『한국과 중국의 회화』, 학고재, 1999.
- 許英桓, 「顧氏畫譜研究」, 『誠信研究論文集』 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1991, pp. 281-302.
- _____, 「朝鮮時代의 中國畫模倣作들」, 『美術史學』 IV, 학연문화사, 1992.
- 洪善杓, 「朝鮮後期の 繪畫觀—實學派의 繪畫觀을 중심으로」, 安輝濬 監修, 『山水畫』 下一韓國의 美 12, 中央日報·季刊美術, 1982, pp. 221-226.
- _____, 『朝鮮時代繪畫史論』, 文藝出版社, 1999.

3. 국외논저

- 고바야시 히로미쓰(小林宏光), 「明末繪畫と西洋畫法の遭遇」, 青木茂·小林宏光 監修, 『中國の洋風畫展: 明末から清時代の繪畫·版畫·挿繪本』, 町田: 町田市立國際版畫美術館, 1995.
- 古本小説集成編委會 編, 『古本小説集成』 1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顧衛民, 『基督宗教藝術在華發展史』,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5.
- 馬文大, 陳堅 主編, 『明清珍本版畫資料叢刊』 第1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3.
- 首都圖書館 編輯, 『古本小説四大名著版畫全編』, 北京: 學裝書局, 1996.
- 『中國古代小説版畫集成』 3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 周心慧 主編, 『新編中國版畫史圖錄』 第5冊·明 萬曆版畫(2), 北京: 學苑出版社, 2000.
- 周心慧, 『中國古版畫通史』, 北京: 學苑出版社, 2000.
- 向達, 「明清之際中國美術所受西洋之影響」, 『東方雜誌』 第27卷 第1號, 1930(『唐代長安與西域文明』, 石家

莊: 河北教育出版社, 2001, pp. 483-529 재수록).

Sullivan Michael, "Some Possible Sources of European Influence on Late Ming and Early Ch'ing Painti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Painting*,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1970.

국문초록

이 논문은 尹斗緒(1668-1715)가 조선 후기 새로운 회화경향을 선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중국의 회화 관련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고 파악하여, 윤두서가의 서화 관련 중국출판물의 장서 실태와 윤두서의 명·청대 화보, 백과전서, 목보, 소설삽화, 서양화법의 수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1927년부터 1928년에 걸쳐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한 『海南尹氏群書目錄』에 수록된 회화 관련 서목들은 윤두서의 중국출판물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림을 전수받을 만한 스승이 없었던 그가 절과화풍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 화단의 누습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일가를 이루고 조선 후기 화단의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대량으로 수입된 중국출판물의 도움이 컸다. 윤두서의 회화에 영향을 미친 중국출판물은 『顧氏畫譜』, 『唐詩畫譜』, 『圖繪宗彝』, 『唐解元倣古今畫譜』, 『張白雲選名公扇譜』, 『梅蘭菊竹譜』, 『三才圖會』, 『芥子園畫傳』, 『方氏墨譜』, 『程氏墨苑』, 『隨唐演義』, 『忠義水滸傳』, 『養正圖解』, 『八仙出處東遊記』, 『太平廣記』, 『盛明雜劇』 등이다. 특히 윤두서가 『개자원화전』을 가장 먼저 수용한 사실을 통해서 『개자원화전』의 조선의 유입 시기가 윤두서의 졸년인 1715년 이전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윤두서가 1706년 이후에 구사한 서양화법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접촉했던 인물들이 저술한 程大約의 『정씨목원』과 顧起元の 『客座贅語』를 통해서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Abstract

How Chinese Publications Shaped Yun Du-seo's Evolution as a Painter

Cha Mi-ae*

Yun Du-seo (1668-1715), the literati painter of late Joseon, led the painting trends of his time. His role as the trend-setter owed in large part to his exposure to and in-depth acquaintance with Chinese books on painting, and his ability to assimilate foreign stylistic elements in a manner that did not overshadow his original style. This paper discusses Chinese publications on painting-related topics which had been in Yun Du-seo's private collection, and how he used the inspirations drawn from painting manuals, encyclopedic publications, ink stick pattern books (*mopu*), illustrations to fictions and plays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the western painting methods with which he became acquainted, for his own works. Book titles listed in *Haenam Yunssi Gunseo Mongnok* (List of Books Collected by Haenam Yun Clan) Various Book Catalogues of the Yun Family, compiled by Joseonsa Pyeonsuhoe (Society for Joseon History Publications) between 1927 and 1928, some of which personally belonged to Yun Du-seo, provide important evidence of the broad variety of Chinese publications read by the literati painter.

An almost completely self-taught painter, Yun Du-seo broke away from the conservative trend of the artistic circles of his time, dominated by the style of the Zhe school, to shape his own

* Cultural Heritage Connoisseu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istinct style and, thereby, emerge as one of the pioneering figures of late-Joseon painting. This ability of Yun Du-seo to rise above the norms and conventions of his time is owed, to an important extent, to his exposure to Chinese publications, then imported to Joseon in large quantities. Chinese publications which had an influence on Yun Du-seo's paintings include *Gusbi Huapu* (Gu's Album of Paintings), *Tang Shi Huapu* (Tang Poetry and Painting Album), *Tubui Zongyi* (Illustrations of Ritual Vessels), *Tangjieyuan Fang Gu Jin Huapu* (Catalogue of Ancient and Present Paintings Imitated by Tang Yin), *Zhang Baiyun Xuan Minggong Shanpu* (Zhang Baiyun's Selection of Famous Historical Figures), *Mei Lan Ju Zhu Pu* (Album of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Paintings), *Sancai Tubui* (Illustrations of the Three Powers), *Jie Zi Yuan Hua Zhuan* (Mustard Seed Garden Album of Paintings), *Fangshi Mopu* (Master Fang's Album of Ink Sticks), *Cheng Shi Mo Yuan* (Ink Gardens of the Cheng Family), *Sui Tang Yan Yi* (Tales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Zhong Xi Shui Hu Chuan*, Yangzheng Tujie (Cultivated Rectitude: Illustrated and Explained), *Baxian Chuchu Dongyouji* (Record of the Eight Immortals' Journey to the East) by Wu Yuntai, *Tai Ping Guang Ji* (Wide Gleanings from the Taiping Era), and *Chengming Zaju Sanshi Zhong* (Thirty Theaters of Prosperous Ming Period). Yun Du-seo, notably, is known as the first Joseon man to have laid his hand on *Jie Zi Yuan Hua Zhuan*. This album of paintings, indeed, is confirmed to have been imported to Korea at least prior to 1715, the year of Yun Du-seo's death. Meanwhile, the Western-style painting techniques used by Yun Du-seo since 1706 have been traced back to *Cheng Shi Mo Yuan*, a work authored by Chinese scholars who were in contact with Matteo Ricci (1552-1610), and *Ke Zuo Zui Yu* by Gu Qiyuan; two publications with which the Joseon literati painter is known to have been familiar.